

애경유화, 2차전지 소재 공장 건설

600억원 투자 전주 과학산업단지에 ... 핵심부품 포함 2010년 가동

애경유화가 600억원을 투입해 2차전지에 사용되는 첨단소재 및 핵심부품 공장을 건설한다.

애경유화는 하반기부터 전주 과학산업단지의 3만3000㎡ 부지에 600억원을 투자해 첨단소재 및 핵심부품 공장 연구소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1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생산제품은 공장을 건설하면서 결정키로 했다.

애경유화는 1970년 설립됐으며 2008년 매출액은 5400억원으로 울산공장 등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

전라북도 관계자는 “애경유화가 신 성장동력 산업인 첨단소재 및 핵심부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주 산업단지에 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애경유화 부규환 대표와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, 완주군 임정엽 군수는 9월28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9/28>